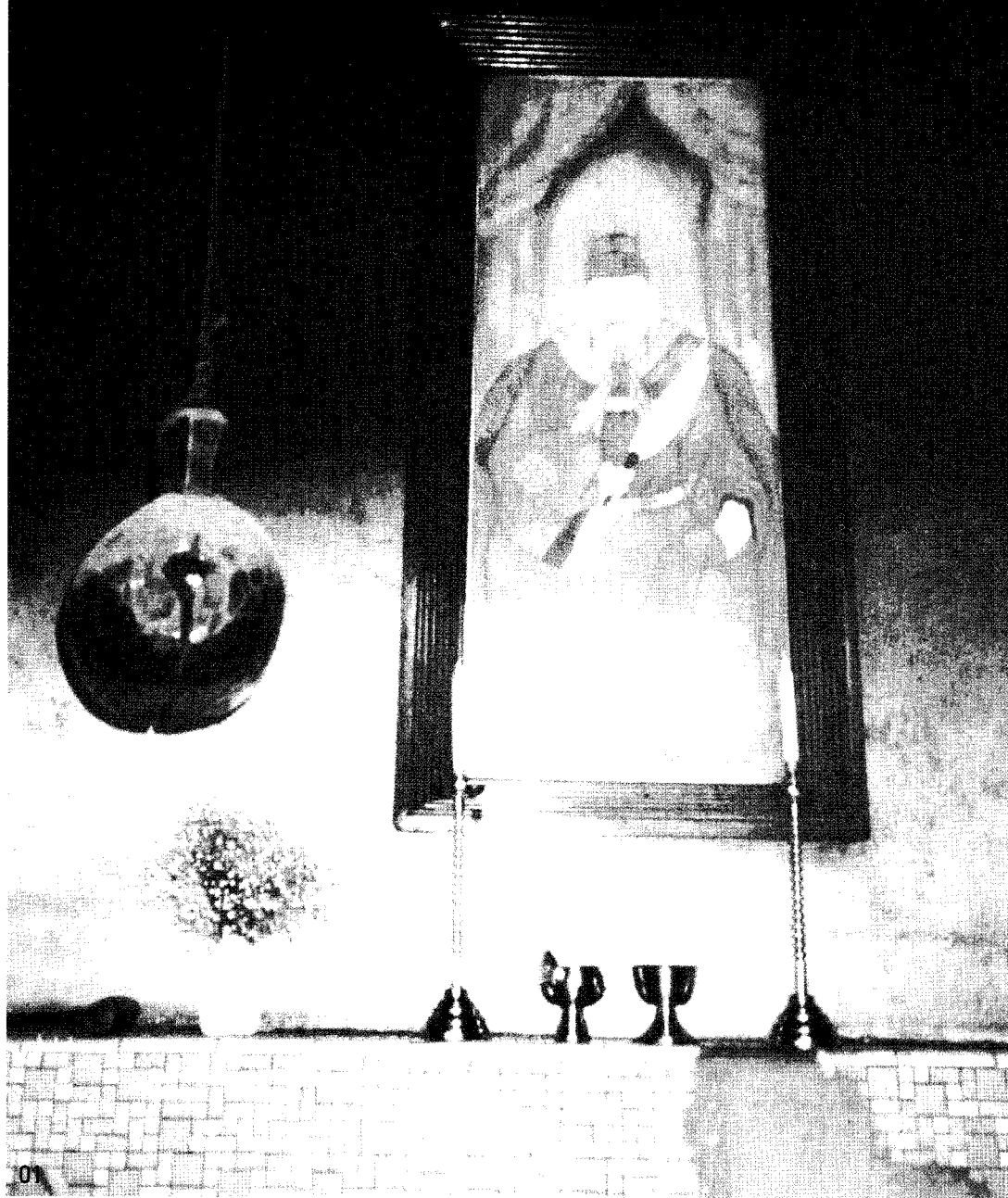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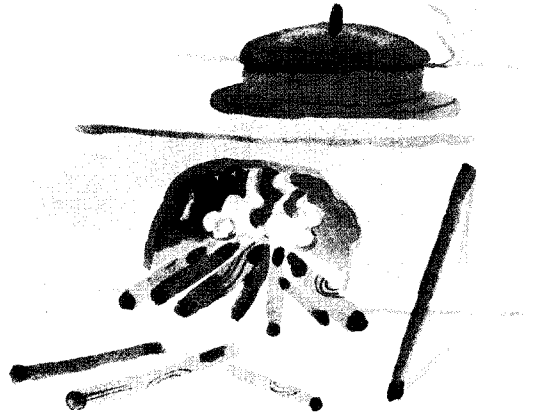
# 부엌 지킴이, 조왕(寵王)

불과 민속

•  
부엌 지킴이,  
조왕(寵王)

글  
•  
정연화  
문학박사  
국립민속박물관





1990년대 초반, 충남 마곡사로 조왕 조사를 간 적이 있다. 사찰의 부엌지기라면 누구나 조왕을 아는 것이 상식이라, 때마침 솥에 불을 지피는 젊은 스님을 보고 살며시 조왕님 구경을 왔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젊은 스님은 조왕이 무엇인냐고 되물더니, 연신 아궁이에 불만 지피었다. 답답한 마음을 조아리고 있다가 부엌 선반 위에 공양사발과 촛대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공양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새벽 4시에 청수를 바치고 아침 10시에 공양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이 끝나 필자가 벽면을 깨끗한 종이로 닦아내자 왕관을 쓴 신상이 보였다. 바로 조왕 그림이었다. 이것을 보고 스님도 놀랐다. 연기에 그늘려 신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선배 스님이 그랬듯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젊은 스님은 늘 공양을 하였던 것이다. 마곡사 부엌도 새롭게 단장을 하였는데, 그 조왕 그림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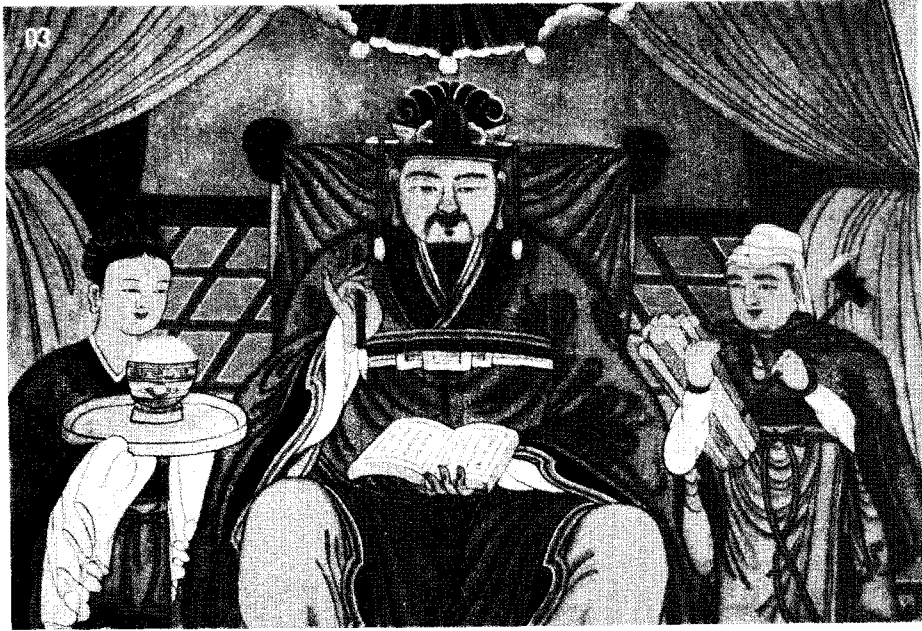


02

01 동학사 조왕신과 목탁. 조왕신 그림이 단독으로 등장하고, 대형 목탁은 음식이 만들어지면 공양할 시간을 알린다. 02 봉원사 조왕. 문무 관리들만 등장한 모습이다.

조왕(寵王)은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엌을 지키는 왕(王)'이다. 부엌은 한 집안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자 불을 지피는 곳이기에 조왕은 불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조왕을 조신(寵神), 조왕보살, 조군(寵君), 동주사명(東廚司命), 취사명(醉司命), 사명조군(司命寵君), 호택천존(護宅天尊), 정복신군(定

福神君)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호칭의 신, 천존, 보살, 왕, 군, 사명(司命) 등을 통해 조왕의 위치를 알게 해준다. 민간에서 조왕신은 조왕할아버지(寵王爺) 혹은 조왕군(寵王君)이라고 부른다. 조왕군(寵王君)의 명칭은 戰國策(전국책)에서 처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전국시대에 조왕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칭 가운데 '東廚司命(동쪽 주방의 사명)'은 '조왕신'과 '사명'을 같은 신으로 보고 있으나, 조왕신과 사명신은 원래 별개의 다른 신이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조왕신을 사명조군(司命寵君) 혹은 동주사명(東廚司命)이 되어 버렸고, 조왕신 신상에는 '司命神位', '九天東廚司命張公定福君之神位'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편, 조왕을 '술 취한 사명(醉司命)'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왕신을 하늘로 올려 보낼 때 술 찌꺼기를 아궁이 위에 붙여 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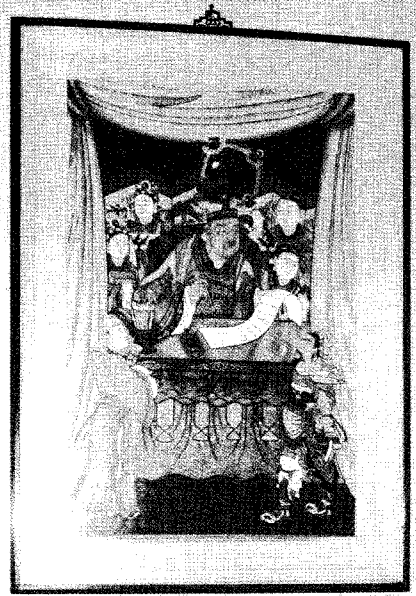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은 '조왕할머니'라고 부르며, 부녀자들이 아침 일찍 조왕단지의 정확수를 갈아주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또한 작은 기름통에 불을 밝히거나 밥을 지어 조왕에게 제사를 지낸다. 조왕의 성별을 중국에서는 여성으로 보기도 하고, 중국 장규(張奎)의 「경설(經說)」에서도 조왕신은 신통력이 있는 여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왕신의 유래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염제(炎帝), 황제(黃帝), 오(奧), 축융(祝融), 팔(髻), 별신(星神), 송무기(宋無忌), 소길리(蘇吉利), 선(禪), 장단(張單), 외(隗), 장자곽(張子郭) 등인데 남자 성이 많이 등장한다. 현재 중국의 조왕신 그림을 보면 각진 얼굴, 큰 귀에 긴 수염을 한 외모와 한대 때 문관의 관복과 관모를 쓴 모습이거나 도교 도사들이 입는 저고리와 관을 쓰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남성의 조왕신을 모시고 있다. 조왕의 그림은 조왕신 단독으로 나오거나 조왕부인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운남성의 조왕 지마(紙馬)를 보면, 그림 위쪽 동쪽에는 조왕이, 서쪽에는 조왕부인이 나란히 앉아있고, 중간에는 향과 촛불이 그려져

있어 늘 조왕신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하단 서쪽에는 부인네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고, 동쪽에는 어린 시종이 말고삐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은 조왕이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갈 말이다. 그 밖에도 조왕 내외와 시종들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옥황상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조왕부인 없이 조왕신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림 가운데에 조왕신이 서있고, 조왕 뒤쪽에는 어린 동자 둘이, 앞쪽에는 신하 두 명이 서있다. 조왕의 모습은 왕 또는 황제로 승격된 모습이

03 강화도 보문사 조왕신 공양을 하는 시녀와 도끼와 죽간을 들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보인다. 04 중국 절강성 조왕신 매일 아침 촛불과 향을 피운다. 05 용문사 조왕님, 네 명의 부인과 문무 관리가 보인다. 한참 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중이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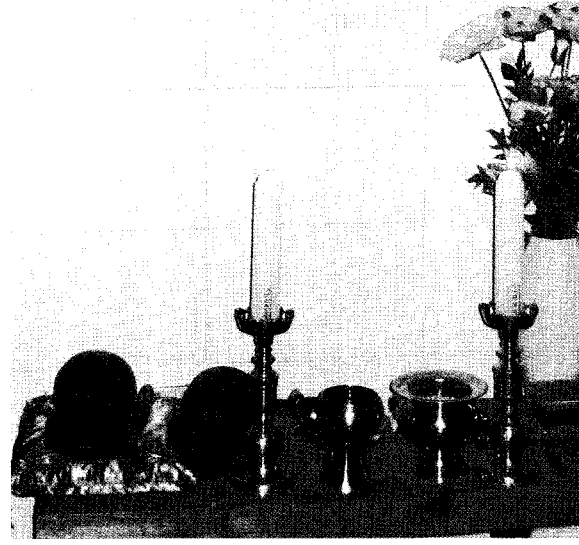
다. 우리나라 사찰의 조왕신은 조왕신 단독으로 보이며, 조왕신 주변에 장군이나 동자들이 서있다. 조왕의 모습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황제로 표현하며,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중국의 조왕은 문신, 판관, 시중 등 7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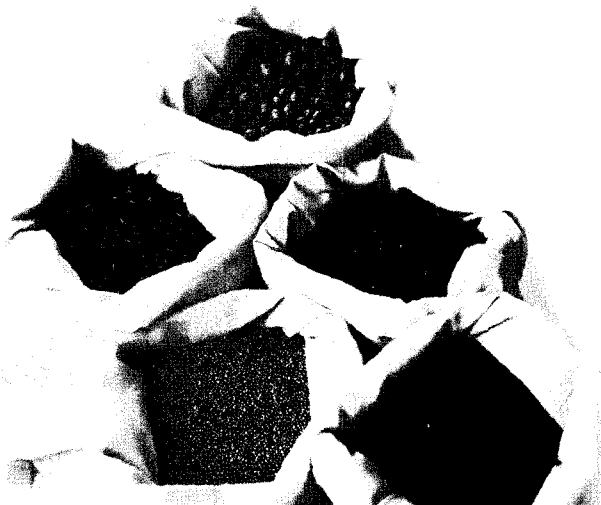
조왕신은 옥황상제에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 년 동안의 일을 보고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와 동진 때 이 같은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며, 가정

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평안과 보호를 기원한다. 조왕신 그림 양쪽에는 ‘上天言好事’, ‘下界保平安’, ‘上天言好事 回宮降吉祥’, ‘世上司命主 人間福祿神’이라는 댓구가 있어 조왕신에게 가정을 잘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

중국에서 조왕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북경에서는 고기, 엿, 떡 등을 제물로 바치는데, 엿과 떡은 조왕신의 입을 붙게 하는 것으로 옥황상제를 찾은 조왕신이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술을 아궁이 주변에 바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왕신이 술에 취해 제대로 옥황상제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왕신을 ‘술 취한 사령(醉司命)’이라고 칭한다. 『東京夢華錄』(宋)에도 “12월 24일 조왕신을 부엌에 붙이고, 술떡을 아궁이 입에 부쳐 司命을 취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절강성에서는 설탕과 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탕원보(糖元寶)’, 팔을 속으로 한 떡인 ‘사조단(謝寵團)’을 바친다. 현 신상을 태울 때는 젓가락으로 가마를 만들어 조왕 그림을 올려 문 밖에서 태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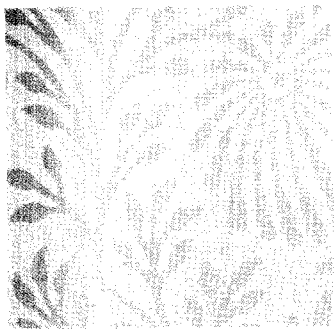


조왕신을 보내는 의식이다. 산동성에서는 풀과 콩을 문 밖으로 뿌리는데 이것을 조왕을 태우고 갈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 산동성 교동지역에서는 매년 12월 23일에 옛 조왕신을 떼고 그림 속 조왕신의 눈을 바늘로 찌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왕신을 앞을 못 보게 함으로써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집안의 나쁜 일을 알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우리나라도 조왕신의 입이라고 여기는 아궁이에 엿이나 술을 바르는 풍속이 있다.

우리나라 민가에서는 아침마다 조왕에게 청수를 올려 매일 치성을 드리며, 사찰에서도 청수는 물론 아침 10시에 공양을 올린다. 중국에서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향불을 밝히고 축원을 올리며, 식당에서는 조왕에게 매일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그러나 조왕에게 지내는 제사 중 가장 성한 것은 조왕이 하늘로 올라가는 12월 23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술에 밥을 가득하고 밥주걱을 꽂거나 솔뚜껑을 뒤집어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한 중간에 조왕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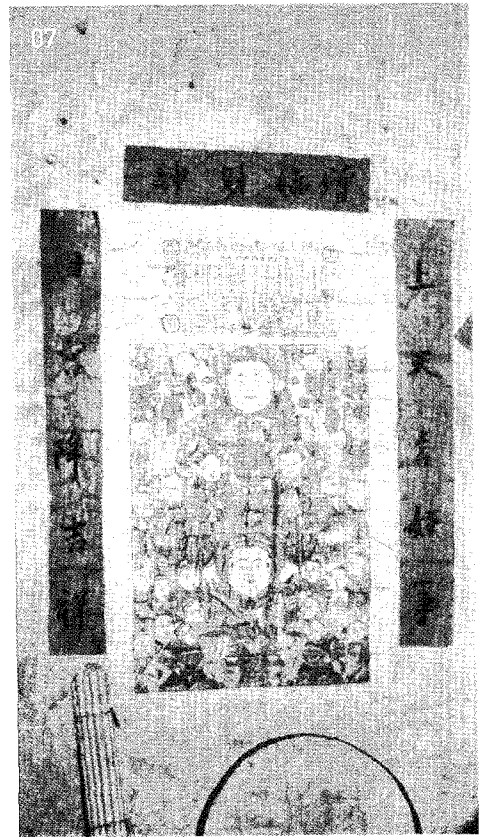
조왕신에 대한 제사 시기는 분분하다. 문헌에 보이는 제사 시기는 1월, 4월, 8월, 12월인데, 「예기」에서는 4월에, 도교서적인 「옥암기(玉壘記)」에는 조왕신의 생일인 8월 3일에, 「후한서·음홍전

06 인천 중국 식당 부엌에 있는 조왕신 그림. 07 중국 산둥 어느 민가 부엌에 붙인 조왕신 그림.



《陰興傳》과 「형초세시기」에서는 12월에, 「포박자」(진)와 「제조(祭竈)」(남송)에서는 12월 24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남송이후 민간에서는 12월 24일이나 23일에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부엌 대신 화당(火塘)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장족(藏族)들은 조왕신의 신상은 없지만, '소박한 복장에 패를 달고 금으로 만든 국자를 들고 있는 미녀'로 조왕신을 묘사하고 있다. 음식이 외부로부터 들어와도 조왕에게 먼저 음식을 바치고, 부엌이 있는 장족들은 아궁이에 전갈 그림을 새기는데, 그것을 용의 화신 또는 조왕신의 신체로 여긴다. 12월 23일에 전갈에 백토를 바르고, 조왕신을 경외하는 표시로 소라와 붉은 마노 유리를 부엌 아궁이 벽면에 박아놓는다. 또한 머리털, 개뿔, 손톱, 짐승털, 인분 등을 아궁이 불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왕신이 쉽게 화를 낸다고 한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 이수광(李睟光)이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조왕신은 단군시대부터 내려온 오랜 습속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수광이 반가에서 조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가례의절」에 조왕 신문(神文)을 실었으니 모방해서 제사 지내기를 운운한 것에 비평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왕신이 송나라 때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나 모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조왕 신앙에 나타나는 관념이나 종교적인 행위 등은 매우 유사하다.

사찰 경내에 들어가면 부엌은 늘 '출입금지' 라는 팻말이 적혀 있다. 스님들이 공양하는 공간이기에 함부로 외지인이 들어가는 것은 실례이기는 하나, 조왕님에게 한 번쯤 인사를 전하러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